

# 신선우유 90% 수입하는 말레이시아 파우더 제품도 '인기' 그렇다면 시장 공략법은?



쿠알라룸푸르지사

작성자\_ 서재희



## 우유 자급률 64%,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

말레이시아의 2021년 총 우유 소비량은 68.2백만 리터, 생산량은 43.8백만 리터로 전체 소비의 64.2%를 자급하고 있다. 이중 신선우유 시장의 90% 이상이 수입제품으로 2021년에만 24백만 리터의 우유를 수입했다. 말레이시아의 우유 수입량이 많은 이유는 제한된 농업 면적, 호주산 우유의 가격경쟁력, 비싼 사료 가격 등이 주요 요인들로 꼽히고 있다.

현지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유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현지 기업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유 생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신선우유 소비량 100%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 말레이시아 우유 최대 수출국은 뉴질랜드로, 2022년 3분기 기준 160,593천 불의 수출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가 있으며 한국은 3분기 171천 불 수출 실적을 올렸다.

말레이시아 우유 소비 및 생산량 추이



2022년 3분기 기준 말레이시아 주요 우유 수출국

순위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뉴질랜드	37.4	6	일본	3.07
2	미국	27.48	7	리투아니아	2.62
3	오스트레일리아	8.11	8	독일	2.29
4	벨기에	4.48	9	프랑스	2.28
5	아일랜드	4.05	10	네덜란드	2.04

출처: GTA

##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우유 브랜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우유 브랜드는 네덜란드 기반의 '더치 레이디 밀크 인더스트리(Dutch Lady Milk Industries Berhad)' 사로, 액체 우유 시장의 40%, 전체 유제품 시장의 약 24%를 점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303백만 불의 실적을 기록했다. 다양한 맛의 가향 우유를 멸균팩, 캔 형태 등 여러 방식으로 신규 출시하고 있으며 디즈니, 마블 등과 콜라보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 우유 브랜드로는 팜 프레쉬(Farm Fresh)가 있으며 전체 시장 점유율 5위, 10% 수준으로 성장 추세에 있다. 팜 프레쉬는 말레이시아 내 총면적 11.4km<sup>2</sup>, 젖소 5,961마리의 5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유아용 성장 기능성 우유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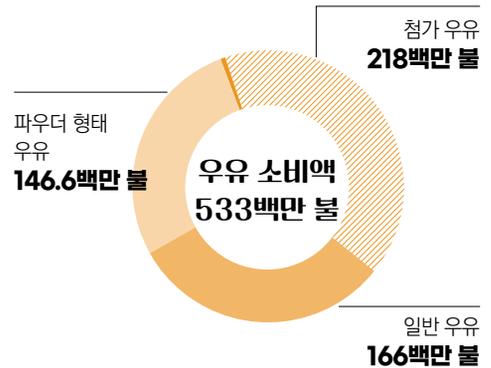
더치 레이디\_마블 콜라보 우유



팜 프레쉬\_ 유아용 성장기능성 우유

## 파우더 형태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말레이시아 우유 시장

말레이시아의 우유 소비는 일반 우유와 분유가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파우더 형태 우유 비중이 높은 것이 큰 특징이다. 2021년 기준 우유 소비액 533백만 불 중 첨가우유 비중이 1위 (218백만 불)였고 일반 우유(166백만 불), 파우더 형태 우유(146.6백만 불) 순으로 나타났다. 현지 마트에서는 다양한 파우더 우유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특히 성인용으로 다양하게 출시되는 제품 광고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 주요 분유 제품



페르리프 풀 크림(뉴질랜드)  
19.67링깃 (5,901원)



아넨 3x(뉴질랜드)  
11.55링깃(3,465원)



네슬레 에브리데이(미국)  
10.96링깃(3,290원)

MYR 1링깃=KRW 300원 기준

## 유제품 수입 '필수' 수의청(DVS) 유제품 등록 절차

말레이시아에서 우유 및 유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의청(DVS, The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의 제조시설 및 낙농시설 등록과 제품 등록 허가가 필수이다. 시설 등록 이후 제품 등록을 마쳐야만 수입 허가를 받아 제품 수출을 할 수 있다.



시설 등록 이후 제품 등록 단계에서 할랄 인증이 필요하며, 한국의 할랄인증기관인 KMF 혹은 자킴(JAKIM,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의 현장 실사를 통해 결과가 나온다. 수출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DVS 유제품 등록 신청서(예시)

### 1. 수입 허가서

말레이시아 검역당국 (MAQIS, the Malays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Department)에서 발행한 수입 허가서

### 2. 검역증서

수출국가의 검역증서로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 필요

### 3. 할랄 인증서

식용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자킴(JAKIM) 혹은 이에 준하는 할랄 인증 기관의 할랄인증서

### 4. 제품 라벨링 필수 내용

제조 업체의 명칭, 주소 및 사업자 번호, 배치/롯트 번호, 제조 일자, 유통기한, 보관 조건

\* 식용 이외의 우유 혹은 유제품의 경우 빨간색으로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또는 "동물 전용", "동물 사료"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 Insight

말레이시아 우유 시장은 뉴질랜드, 미국 등 특정 국가와 브랜드에 치중된 상황이며,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를 바탕으로 진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서울우유,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등 한국산 우유가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유 및 유제품 수출을 위한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음료 제품의 꾸준한 인기 상승세와 더불어 다양한 맛과 기능성 성분을 가진 한국산 우유로 현지인들을 공략해보는 것은 어떨까?

